



새 연못과 물잡기 – 여과가 아직 암모니아를 처리하지 못하는 기간

h2koi.com · 2026-08-04

이 글의 요점

- 암모니아를 아질산염으로 바꾸는 균과 아질산염을 질산염으로 바꾸는 균은 다른 집단이며 순서대로 자랍니다. 그래서 **암모니아가 먼저 오르고, 늦게 아질산염이 오릅니다.**
- 수온에 크게 좌우됩니다. 20~25°C에서 4~8주가 흔한 기준이며, 저수온에서는 훨씬 길어집니다.
- **물잡기는 KH를 가장 빠르게 소모하는 시기입니다.** 암모니아성 질소 1 mg/L을 산화하는 데 알칼리도가 약 7 mg/L(CaCO_3 기준), 즉 약 0.4 dKH 소모됩니다.
- 그 산은 전부 **첫 단계**에서 나옵니다. 아질산염에서 질산염으로 가는 단계는 알칼리도를 전혀 소모하지 않습니다.
- 한국에서는 매년 3~4월이 사실상 부분 물잡기이며, 연못이 코이를 잃는 시기도 대개 이때입니다.

수온 / PH	7.0	7.5	8.0	8.5
20°C	0.4%	1.2%	3.8%	11%
25°C	0.6%	1.8%	5.3%	15%
30°C	0.8%	2.5%	7.4%	20%

투여량 정정. 탄산수소나트륨(베이킹소다, NaHCO_3) 약 30 g/톤(=30 mg/L)이 KH를 약 1 dKH 올립니다. 1톤 = 1,000 L입니다. 널리 퍼진 100 L당 1 g 규칙은 1톤당 10 g에 해당하며 약 0.33 dKH밖에 올리지 못합니다. 세 배가량 모자란 값이므로 그대로 쓰지 마십시오. 하루 1~2 dKH 이내로 나누어 올리고, 물에 미리 녹여 유입부에 천천히 투입하십시오. 여과조에 굴 껍데기(굴패각)나 산호사를 넣어 두는 방식도 흔히 쓰이며, 이쪽은 서서히 녹아 완만하게 받쳐 줍니다. 모두 관행값이며 처방이 아닙니다.

봄 재가동 순서. 수온이 안정적으로 오르기 전까지 급이를 서두르지 마십시오. 다시 주기 시작할 때는 소량으로 시작해 며칠 단위로 늘리고, 늘릴 때마다 총암모니아와 아질산염, KH를 확인합니다. KH는 겨울을 나며 이미 줄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급이를 늘리기 전에 먼저 권장 범위 안으로 올려 두십시오. 여과조 청소는 이 시기에 하지 마십시오. 지금 남아 있는 생물막이 봄 전체를 좌우합니다.